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박지성 '주간 베스트 11' 휩쓸어

스카이스포츠·BBC·ESPN 등서 뽑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두 골을 터트린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축구전문 매체가 선정하는 '주간 베스트11'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지난 17일(이하 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볼턴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어 맨유의 4-1 대승을 이끈 박지성은 영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에 이어 BBC와 미국 ESPN이 선정하는 주간 베스트11에도 뽑혔다.

3개 매체에서 주간 베스트11로 선정된 건 박지성과 팀 동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스트햄의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카를로스 테베스 정도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19일 칼럼니스트 가스 크룩스 선정하는 주간 베스트11 중 박지성을 4-4-2 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로 뽑았다.

맨유 멤버 중에는 전반 세 골에 모두 기여한 호날두가 오른쪽 미드필더로, 두 골을 넣은 웨인 루니가 최전방 투톱으로 각각 선정됐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케이블 ESPN의 축구사이트 'ESPN사커넷'도 주간 베스트11에 박지성을 3-5-2 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정했다.

역시 맨유 선수 중에는 박지성과 함께 호날두와 루니가 각각 오른쪽 미드필더, 최전방 투톱으로 뽑혔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첫 선발 출전 경기였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트린 뒤 추가골로 이어진 페널티킥까지 유도하며 2-0 승리를 이끈 중국 대표팀 미드필더 정지(찰턴)는 BBC와 ESPN의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이 올랐다.

박주영 24일 우루과이전 제외

박지성 등 해외파 7명 출전
베어벡, 대표팀 26명 확정

'축구천재' 박주영(FC서울)이 오는 24일 열릴 우루과이와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우루과이와 친선경기에 참가할 국가대표팀 명단 26명을 19일 발표했다.

베어벡 감독은 28일 열릴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우즈베키스탄전에 대비해 풀백 김창수(대전), 중앙수비수 강민수(전남), 미드필더 기성용(서울) 등 올림픽대표팀 멤버들을 처음으로 A대표에 발탁했다.

미드필더 손대호(성남)도 처음으로 대표팀에 선발됐다.

박주영은 지난달 28일 올림픽 예선 예멘전에서 퇴장으로 3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당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표팀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설기현(레딩FC), 이영표(토트넘)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3인방을 비롯한 일본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조재진(시미즈)과 김정우(나고야), 러시아 프로 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 등 해외파 7명이 포함된 정예 멤버들로 구성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피겨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김연아가 일본 도쿄 체육관에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세계피겨선수권 첫 적응훈련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20~25일·도쿄) 개막을 하루 앞두고 첫 적응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일본에 도착한 김연아는 19일 오전 대회가 열리게 될 도쿄 시부야 도쿄체육관에서 첫 빙판 적응훈련에 나서 일본 언론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일본 스포츠신문들은 일제히 "김연아가 고난도의 트리플-트리플 콤비네이션(연속 3회전)과 비엘만 스핀(다리를 머리 뒤로 들어 올려 손으로 스케이트 날을 잡고 도는 기술)을 선보였다"며 "허리 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김연아의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는 이날 훈련에서 이틀 연속으로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 반)을 위주로 연습을 펼쳤다.

쇼트프로그램 연습에 나선 아사다는 트리플 악셀을 세 차례 시도해 두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착지가 불안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말 어깨부상으로 한동안 고생했던 안도 미키(19·일본)는 쿼드러플(공중 4회전)에 여섯 차례나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트리플-트리플 콤비네이션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프리스케이팅 연습에 나선 나가노 유카리(22·일본)도 트리플 악셀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김연아는 캐나다 전지훈련 막바지에 점프 연습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꼬리뼈 부근을 다쳐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골 가뭄'

프로축구 K-리그가 시즌 초반부터 화끈한 골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올 시즌 K-리그 3라운드와 컵대회 1라운드 등 팀당 총 4경기씩(성남·전남은 3경기씩)을 치른 19일 현재 프로축구 27경기에서 모두 69골이 터졌다.

경기당 평균 2.56골이 쏟아진 셈이다. 하지만 광주 상무는 컵대회를 포함, 4경기동안 2골을 뽑아내 경기당 평균 0.5골에 그친 반면 무려 12점을 실점했다. 전남 드래곤즈도 정규리그 3경기서 3골(4실점)을 뽑아 경기당 1득점에 그쳤다.

전체 69골…경기당 평균 2.56골
광주 0.5골·전남 1골 그쳐

경기당 2.56골은 출범 25년째를 맞은 한국 프로축구를 통틀어 역대 9번째(최고 기록은 1996년의 2.97골)지만 같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이다. 지난해(2.19골)보다는 16.4%가 늘었다.

특히 2004년(2.08골), 2005년(2.31골)에 이어 지난해까지 최근 2점대 초반의 골 가뭄에 허덕였던 점을 감안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초반 새로운 얼굴들이 골 감각을 과시하며 득점 경쟁에 뛰어든 것도 고무적이다.

현재 K-리그와 컵대회를 포함해 득점 선두는 14일 컵대회 대전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7년 만에 복귀한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부활을 알린 '테리우스' 안정환(수원·3골)이다.

이어 12명이 각각 2골씩을 기록하며 언제든 순위 경쟁에서 치고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

득점 랭킹 선두권에서는 K-리그 득점왕 출신 우성용(울산)과 차세대 골잡이 정조국(서울), 전북을 지난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끈 미드필더 김형범 정도가 각각 2골로 지난해에 이어 이름값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프로 데뷔 후 3시즌 만에 골 맛을 본 올림픽대표 이근호(대구)를 비롯해 이광재(포항), 박재현, 김상록(이상 인천) 등 의외의 인물들이다.

한국 선수들이 초반 득점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골 이상을 터트린 13명 중 외국인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보통 용병 골잡이들이 리그 적응을 거쳐 뒤늦게 발동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 시즌 득점 경쟁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불을 뿜을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간 돌고래 쇼?

브라질의 싱크로 팀이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0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팀 기술부문 개막 경기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청소년축구대표팀 입국
제주도서 한달간 전지훈련

북한의 17세 이하(U-17) 청소년축구대표팀이 20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제주도 등지에서 한 달 일정으로 전지훈련을 한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안예근 감독이 이끄는 북한 U-17 청소년대표팀이 20일 오전 4시55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곧장 제주도로 이동한 뒤 오는 31일까지 서귀포 강창학구장에서 11박12일 간 전지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3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 청소년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북한은 제주도에 이어 광양, 수원, 서울에서 20일 정도 훈련하면서 국내 대학, 고교팀 등과 5~7회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다득점 노린다"

AFC챔피언스리그 내일 印尼 아레마와 격돌

지난 7일 태국원정에서 방콕대학과 무승부로 주춤한 FA컵 우승팀 전남 드래곤즈가 안방에서 '약체' 인도네시아를 맞아 대승을 노린다.

같은날 '눈밭'에서 동탐롱안(베트남)을 물리친 K-리그 챔피언 성남 일화는 중국 원정길에 올랐다.

전남은 21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200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2차전으로 아레마 말랑(인도네시아)와 맞붙는다.

전남은 조 1위를 다툴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가 아레마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둔 점에 비춰 기선 제압과 골득실 입지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 4~5골은 퍼부어야 성이 찰 듯한 기세다.

전남은 주말 K-리그 대구FC와 3라운드에서도 '두 산드로'의 연속골로 다 잡았던 승리를 올림픽대표 이근호의 반격골 두 방에 무승부로 마쳐 첫 승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

성남도 같은날 오후 8시(이하 한국시간) 중국 지난의 산둥스포츠센터에서 200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2차전으로 중국 C리그 우승팀 산둥 루넝과 격돌한다.

올 시즌 K-리그와 아시아 클럽 대항전 제패를 동시에 노리는 성남의 첫 번째 시험대다.

작년 C리그와 중국 FA컵을 휩쓸어 2관왕이 된 산둥은 7일 애들레이드FC(호주)와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둬 만만찮은 전력을 자랑했다.

2005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J리그의 자존심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두 번 연속 울려 8강에 올랐던 팀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